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

장애인 100여명 '우리는선우'와 놀이공원 나들이



나들이에 참석한 장애인과 도우미들이 합창을 하며 마음을 모으고 있다.



도우미가 장애인에게 정성스럽게 밥을 먹여주는 모습.

본지와 함께 진행한 '자비의 등 달기' 수익금으로 마련 동물 보고 미술쇼·사물놀이·컵등 만들기 '신나는 하루'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 푸른 하늘만큼이나 화창한 9월 19일 오전 9시. 목밭에 기대거나 휠체어에 의지한 장애인 100여명이 '신나는 하루, 즐거운 추억'을 주제로 열리는 우리는선우(이사장 성태웅) '장애우 나들이'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어린이대공원 정문 앞으로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한다.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지만 오랜만의 외출에 표정은 밝기만 하다. 이들은 서울지역의 유라사회복지관, 주몽재활원, 강북장애인복지관, 상락원 등의 복지시설에서 꿈을 키워가고 있는 어린이들과 개별적으로 참가한 1급 지적 장애인들이다. 장애인들을 기다리고 있던 우리는선우 회원, 장애인선 대 학·청년부 회원,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학생, 특전사 제1공수부대 장병 등 하루 동안 호흡을 같이 할 도우미와 진행

자들이 정문 앞에서 반갑게 맞이한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지만 어색한 분위기는 어느새 사라지고 '2인 1조'의 한 몸이 된다. 주몽재활원에서 온 백나영(20)씨와 장애인선원 청년회원 안정훈(29)씨는 "하루만 같이 지내는 '장애우'와 '도우미'가 아니라 앞으로도 마음을 맞추는 '영원한 동반'이 되기로 의기투합했다"고 자랑이다. 간단한 입제식 후 먼저 찾은 곳은 동물원. 경사가 조금 있는 오르막이어서 장애인들에게는 그리 만만치 않은 길이다. 특전사 김정만(22) 일병에게 몸을 기댄 채 걸음을 옮기던 왕성천(48)씨는 "아들뻘"인 도우미가 든든하지만 하다. 왕씨는 "내가 몸집이 커서인지 건장한 김 일병이 자원해서 나의 도우미가 됐다"며 흐뭇해했다. 동물원 내 공연장에서는 물개와 침팬지 쇼가 이어졌다. 광열(14)이는 태권도 시범 공연을 한 침팬지의 모습을 보고 "나보다 훨씬 못 한다"며 한 판 붙어보자는 표정이다. 도우미 김윤석(25)씨가 광열이를 말리느라 적지 않게 애를 먹었다. 김밥과 빵, 과일도 맛있는 점심을 먹은 뒤 계속된 마술 쇼를 본 은재(8)는 "마술사 아저씨 같은 사람이 되겠다"고 기업을 토했다. 마술 쇼가 끝나자 "가지 말라"고 마술사들에게 매달리는 바람에 장내가 웃음바다가 돼기도. 은재의 도우미 김시현(22)씨는 "은재는 팔을 쓰는 것이 불편하지만 성격은 상당히 쾌활하다"며 "앞으로도 든든한 형이 돼 주겠다"고 다짐했다.

마술쇼 이외에도 참가자들은 스빙고놀이 △사물놀이 체험 △페이스 페인팅(face painting) △즉석사진 찍기 △컵등 만들기 등을 하며 가을을 만끽했다. 스님으로는 유일하게 이날 행사에 참가한 탄경(능인선원 대학·청년부 지도법사)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렇게 서로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라며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보살행"이라고 말했다.

우리는선우 성태웅 이사장은 "장애인들은 몸이 불편하다고 마음까지 불편한 것은 아니다"며 "장애인들과 신나는 하루를 보내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자비'의 마음을 실천하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너무 빠르게 지나간 하루가 아쉬웠지만 내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한 참가자들의 얼굴에는 뿌듯함이 가득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지난 5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우리는선우와 현대불교 나눔의 손잡기가 서울 장충단 공원에서 함께 진행한 '자비의 등 달기' 행사의 수익금으로 마련됐 다.

유철주 기자 yjc@buddhapia.com



나눔의 성금

오병진 윤남주 유병훈 성득경 이강석 김영미님 - 36만6050원
총 누계 23,146,730원

살립니다

현재 '나눔의 저금통' 1차 수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찰이나 단체에서는 직접 개봉하여 은행 온라인을 통해 입금한 뒤, 곧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722-4162. 입금계좌: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

나눠드립니다

나눔의 저금통 분양합니다
원숭이해를 맞아 원숭이 저금통을 채워서 보내주세요. 저금통은 회사, 가정, 가게, 단체 사무실 등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특히 불자운 영하는 가게에 기금 모금용 저금통을 비치할 경우 '나눔의 가게'로 선정해 드립니다.

스티커 나눠 드립니다

사찰, 자동차, 건물, 가방에 붙일 수 있는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를 나눠드립니다.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는 조선일보가 전개중인 '우리의 이웃' 캠페인과 상호 협조를 위해 엠블럼을 공동 사용합니다.

조계종, 동남아 불자 법당 마련 나섰다 미얀마선원 돕기 계좌개설 동참 활발

조계종단 차원에서 동남아 불자들의 신행 공간인 법당을 마련하기 위해 모금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본지 491호(9월 15일) 487호(8월 18일)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에 미얀마선원 산디마 스님의 가슴 아픈 사연이 소개 된 후 9월 21일 조계종 총무원에 종단차원에서 미얀마선원 돕기 모금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사회부장 지원 스님은 "일단 미얀마 선원으로 개원한 뒤 산디마 스님을 비롯해 어느 나라 스님이 오더라도 동남아시아 불자들이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종단차원에서 공간을 확보할 방침"이라며 "사회부에서 적극 나서 모금운동을 벌인 뒤 총무원장 스님이 미얀마 선원

에 기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디마 스님은 "조계종단 명의로 법당을 마련해 준다면 태국 스님도 모시고 해서 미얀마 뿐 아니라 태국, 베트남 등 한국에 들어온 동남아 전체 노동자들의 정신적인 귀의처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조계사(주지 원담)와 조계종 총무원 직원 모임인 원우회(회장 윤승환)도 10월 24일 조계사에서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음악회를 열고, 기금을 모을 예정이다. 문의) 조계종 외국인상담지원센터 (02) 2011-1965, 후원계좌: 국민은행 023501-04-004943 (재)불교중앙교회 김원우 기자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 혼성합창단 장애인 음악제 연다

10월 2일 김해문화원서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지원장 해보)의 혼성합창단은 10월 2일 '제5회 장애인을 위한 한마음기원 선법가 음악제'를 연다. 10월 2일 저녁 7시 김해문화원에서 열리는 음악회는 부처님 말씀을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도리를 노래 가사로 일깨우는 선법가 보급과 아울러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이끌어내는 무대. 특히 이번 무대는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 합창단 창단 1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여서 더욱 뜻깊다. 55명의 보살과 거사들로 구성된 혼성

합창단이 선보이는 선법가 '삼체가 돌아닌 노래' '스스로 갖추었네'와 어린이 합창 '어린이 정진가' '마음의 보배' 등이 무대에 올려진다. 이 밖에도 유지부의 율동, 학생회와 사물놀이, 스님과 청년, 학생회가 함께 어우러진 수화 공연 '누가 하는가요?', 대금연주 등이 가을밤을 수놓을 예정이다. 해보스님은 "장애인들이 대한 관심이 생기면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은 절로 생기게 된다"며 "선법가를 통해 마음의 도리를 일깨우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널리 전하고자 음악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어린이·청소년 법회에 찬불동요 테이프와 CD를 보냅니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좋은벗풍경소리가 공동으로 '진국 어린이 청소년 법회에 찬불동요 테이프와 CD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아름답고 순수한 부처님의 마음을 담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찬불동요를 선물해 주세요.

- 어떻게 참여하냐
- 종단·사찰·기업·단체·개인 모두 동참 가능합니다.
- 본사·연구소·단체 등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 1구좌 1만원입니다.
- 보급기간: 2004년 3월부 12월31일까지

- 온라인구좌/동행 053-12-132878
예금주 좋은벗 풍경소리 이종만
- 문의/좋은벗 풍경소리 (02)723-9836

♥ 각 종단의 나눔운동과 연결

함께하면 큰 힘이 됩니다. 각 종단과 NGO 복지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사업과 연대합니다. 또 자비의 콘서트(불자가수) 법률 및 세무상담(불자 변호사 사무사) 봉사 참여하거나 사업연대가 가능합니다.

♥ 나눔의 손잡기 공동체

내가 가진 돈, 힘, 시간, 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시하도록 연결해 드립니다. 자원봉사를 원함에도 그 방법을 몰라 실천하지 못하는 불

자들의 중개소 역할을 자부합니다. 모범이 되는 봉사자들을 추천해 주세요.

♥ 나눔의 손잡기 기금참여

남을 돕고 싶은 분들은 계좌나 한통의 전화로 자비를 실천하는 ARS(060-700-1080)를 통해 기금을 보내주세요.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우 등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고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 어려운 이웃 사연 제보

주위의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결식학생, 독거노

■ 이렇게 참여하세요

인, 장애우의 사연을 알려 주세요.

♥ 정기후원 참여

소년소녀가장과 결식아동의 후원자가 되어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나 급식비를 줄 수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과 결연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락주세요.

♥ 불자기업의 사회공헌

기업의 사회공헌은 이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불자기업들과 불교복지시설을 연계하여 후원

하거나 시설을 건립해 드립니다.

♥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지도자 자매결연

불교계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계 각 종단 스님과 단체 운동가간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과의 결연을 희망하는 스님과 불교지도자들을 모십니다.

♥ 각 사찰의 공양미 나누기

불자들이 보시한 각 사찰의 공양미를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들에게 지원해주세요. 어려운 곳이나 복지시설에 공양미를 보내고 싶은 사

찰은 본사로 신청해주시고, 공양미가 필요한 시설은 연락바랍니다. 과일과 김장, 양념, 라면, 과자류 등 식품도 접수 받습니다.

♥ 자비의 현혈증 및 장기기증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현혈증을 보내주세요. 장기기증에도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보고싶은 가족찾기

미아는 물론 실종가족과 이산가족, 입양아들을 찾아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주세요.